

2019년

# 나로프로젝트

가치각색 나답게 살아온 학교 밖 청소년 활동가들의 이야기!

# 목차

## 01 2019년 나로프로젝트 활동가 이야기

### ———— “나로부터 나오는 나만의 활동”

김민주	나의 건강을 위해서	08
남궁별	하늘 아래 같은 문화생활은 없다	09
정연	정신줄놓기 프로젝트	10

### ———— “불확실함 속에서 한 걸음을 옮기게 한 용기”

김유빈	작심삼개월	14
윤슬아	여행	15
이수빈	피아노 후려치기	16
이안	댄스댄스	17
이한슬	채식요리&베이킹	18

### ———— “과정의 가치를 알아가기”

김연서&문예진	깡생깡사 죽음 다이어리	22
김연서	체다치즈	24
윤지현	R=VD	25

이안	핑몰	27
이주연	내 공간에 작은 정원	28
정연	땡땡메이킹	32
정지원	간편한 지원이	34

———— “새롭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발견하기”

오형준	충북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38
최서연	불편한 페미니즘	40
정지원	무제	41

**02**    나로프로젝트 소개    43

더불어활동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말을 모으다	47
---------------------------	----

**03**    길잡이교사 이야기    59

**04**    징검다리거점공간 ‘나도, 꽃’ 소개    64

01

# 2019년 나로프로젝트 활동가 이야기

“

# 나로부터 나오는 나만의 활동

”

김민주

## 나의 건강을 위해



이제 다음 주는 나로 마지막 날이다. 솔직히 올해는 봄 학기도 같이 해서 가을 학기인지 생각 못 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갔고 나로 프로젝트 덕분에 작년부터 나에게 돈을 쓰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고, 경험해보지 못 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런 내용을 주최해 주신 분들이나 나로 프로그램을 이끌어주신 쌤들한테 정말 감사했다. 근데 올 가을 학기를 하면서 작년 가을 학기 때나 올 봄 학기 때 보다 친구들이랑 아주 친해지지 못한 것 같았다. 다들 성향이나 다르다 보니까 각자 친한 친구들이랑 있는 게 많았고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짬뽕 누구도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활동은 자퇴를 하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현장 체험을 하러 갈 때 못 가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더불어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현장체험으로 놀러 갔던 게 아쉽지 않았던 것 같다.



남궁별

## 하늘 아래 같은 문화생활은 없다



처음에 나로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시 한번 나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기도 했고, 지금이 아니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면서 작년 입시 때문에 한동안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주제를 정했다. 초반에는 처음 접하는 필름이라는 새로운 활동을 한다는 게 과연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찌지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솔직히 내가 한 건 열심히 사진 찍은 그것밖에는 없다. 힘들거나 아쉬웠던 거는 중간에 귀찮아졌던 게 좀 아쉬웠다. 사진을 찍으려면 나가야 하는데 나가기는 귀찮고 나갔어도 까먹고 카메라를 안 들고나가서 결국에 사진을 못 찍고 이런 게 반복되니 좀 아쉬웠다. 그래서 나간 김에 열심히 찍자는 마음으로 찍었다.

이번 나로프로젝트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끝까지 스스로 열심히 해봤다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좋은 취미생활을 하나 얻어 가는 것 같아서 좋았다. 앞으로 나로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건 분명히 좋은 경험일 것이다. 나로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잊지 못할 것이다.

정연

## 정신줄 놓기 프로젝트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저 더불어 활동을 해볼까? 하고 전단 지나 TV 광고를 볼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혹하고 끌리는 그런 것이었다. 농정(농아라 정신줄)으로 주제를 잡은 것 또한 더불어 활동을 정할 때 진짜(?) 내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 멍한 기분을 토대로 주제를 잡은 것뿐 이었다. 그런데 막상 주제 자체가 잡히고 나니 어떻게 하면 ‘농정’으로 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 들어온 하나의 생각, 만화에서 전구가 머리 위에서 번쩍! 하고 떠오른 것은 ‘센터 1박2일’이었다. (물론 내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지만 내 기억으론 센터 활동을 하면서 여행, 놀이 공원 등을 제외한 단체 활동으로 센터에서 1박 했던 기억이 가장 ‘농정’이었던 활동이 아니었나 하고 싶기도 하고 말이다)

뭐 어쨌든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은주쌤의 도움을 받아 ‘와글와글’을 추가한 농정 활동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다. 그 후 이루어진 첫 번째 ‘농정’ 활동인 와글와글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특히 비눗방울 도구와 물총) 등을 샀다. 어릴 적 야시장에 들어와 놀던 아이와 근처에서 체험 활동을 시켜 주던 한 사람의 기분과 심정을 동시에 체험한 듯했고, 2번째 활동으로는 역시나 1박 2일 이어서 그런지 대부분 사람이 참여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면 좋았겠지만, 개인적인 사정, 부족한 홍보 탓에 같이 활동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팀을 2조로 나누고 직접 만들 음식을 정한 다음 재료를 사고 만든 후 각자 만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을 때는 꿀맛이었다. 농구, 당구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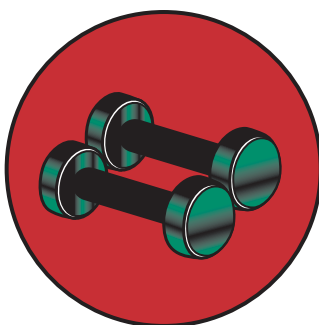
보드게임도 할 때는 부모님이 일 때문에 잠시 나간 친구 집에 놀러 와(물론 허락은 받은 상태로) 자유롭게 노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글이 쓸데없이 길어졌지만, 결론적으로 특이하지만 즐겁고 재미있었다는 이야기이며 뭔가에 얽매이지 않고 만든 더불어 활동이 아닌가 싶다.

“

**불확실함 속에서  
한 걸음을  
옮기게 한 용기**

”



김유빈

## 작심삼개월



좋은 기회로 나로프로젝트를 알게 된 후 그동안 의지가 없어서 못 했던 것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기로 했다.

그 당시 일상생활 속에서의 체력적 한계 제감이 많아져서 첫 번째는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으로 주제를 잡았다. 안 하다가 하려니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계획한 운동량을 모두 끝내고 씻고 나와 찬 흰 우유를 마셨을 때가 너무 좋았다. 보람차기도 했고 꾸준히 하면서 체력이 늘어나는 게 나 자신도 느껴졌다. 강아지와 같이 산책하면서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차지 않고 어느 정도 높이는 올라갈 수 있게 됐다. 독서로 주제를 바꾸면서 운동 횟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최소 주 1회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오고 있다. 나름 괜찮은 운동 습관이 잡힌 것 같아서 좋다.

책을 안 읽으면서 대화를 할 때 적절한 단어나 문장이 생각 안 나기도 하고 어휘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그래서 독서를 선정해 주제를 바꿨다.

윤슬아

## 여행



처음 신청할 땐 사실 활동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솔깃해서 신청했다. 하지만 모임에 계속 나가고 내가 계획한 프로젝트를 실행해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꼈고, 나와 같은 자퇴생 친구 언니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든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모임 때 게임을 하다가 무릎이 다친 것과 여행 갔을 때 서프라이즈로 친구한테 생일파티 해준 것이다. 아쉬웠던 것은 여행을 한 군데밖에 다녀오지 못한 것이다. 그래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수빈

## 피아노 후려치기



사실 나는 이번 첫 나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기까지 생각들이 좀 많았었다. 무엇을 하면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나의 성격과 나로 프로젝트의 기간, 목표들이 정해져 있고 정하여 활동하게 되다 보니 내가 즐길 줄도 알아야 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 활동이 혹여나 점점 압박감이 들면서 의무감으로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진 않을까? 내가 정한 목표를 다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들이 고민을 만들어 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 이번 봄 학기에는 피아노라는 주제로 활동을 해보게 되었었다. 피아노를 전에 배우다가 그만두고 다시 해보고 싶었고, 내 취미를 찾고 싶었던 것 때문에 ‘피아노’라는 주제를 택한 것도 있었다.

봄 학기 나로 프로젝트의 활동이 시작되고 오랜만에 피아노를 쳐보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손이 많이 굳기도 굳고 악보를 보는 법도 까먹어서 1주일은 거의 아기가 걸음마를 떼듯이 피아노를 쳤었고, 조금씩 손이 풀리고 그럴 때쯤 전에는 소리가 좀 뚝 끊어지듯이 났던 부분을 부드럽게 이을 수 있게 되었을 때마다 뿌듯했고 그 뿌듯함이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원동력을 주었었다.

또한, 이번 나로 프로젝트는 나에게 “어떠한 도전에 있어서 완벽함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 같았다.



이안

## 판스판스



난 나로프로젝트를 통해 평소 해보고 싶었던, 해야 하지만 여건이 안 되어 못 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었다. 나로프로젝트의 처음을 댄스강습을 했다. 8번 정도 나갔던 거 같고, 이걸 기대하고 갔지만 내 기대에 못 미쳐 아쉬웠었다. 안무 진행 속도나 커리큘럼 등이 나와 맞지 않아 1달만 하고 그만뒀다. 역시 동아리보단 학원이 나은 것 같다는 걸 깨달았다.

두 번째로는 MIDI를 배우고 있다. MIDI는 쉽게 설명하자면 가상 악기로 곡을 만드는 작업이다. 두 번째로 시작한 MIDI는 유명 아이돌들과 작업하신 분께 배우는 거라 엄청나게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 이상이다. 가르쳐 주시는 속도도 괜찮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설명해주시고 너무 친절하시다. 나로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평소 같으면 시작도 못 해볼 것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했다는 것이 더 발전한 느낌이다.

이한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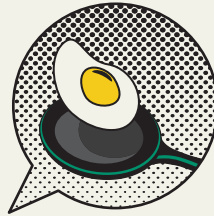
## 채식요리&베이킹



나로프로젝트에서 나는 내가 더 부지런해지지 않을까 기대했다. 이걸 받은 맛고 받은 틀린 것 같다. 요리를 거의 하지 않던 내가 그래도 요리를 해 먹게 되었으니까. 한편으로 아무리 할 일이 많아져도 나는 나구나 싶었다. 예전보다 아주 부지런해진 건 못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도전이었던 건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이다. 요리하는 건 물론이고 채식베이킹 역시 나에게도 도전이었다. 물론 실력을 많이 발전시키진 못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 곧 채식 베이킹 자격증 과정을 듣기로 했는데 나로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시도로 다시 이어지는 것도 즐겁다.

채식베이킹뿐만 아니라 나로프로젝트 초기에 주제를 구상하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돌아봤던 시간이 내겐 절대 헛되지 않았다. 글쓰기, 노래, 유튜브, 타로 등을 생각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타로 말고는 계속 기웃기웃 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중이다. 사실 요리로 선택을 했던 건 내가 구상한 프로젝트 중에 이게 가장 쉬워 보였기 때문이다 :) 나의 활동은 요리가 정말 처음이자 끝이었고 나로프로젝트 덕분에 장보는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가족들이 내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었을 때다. 요리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 내 요리를 맛있게 먹어줄 때마다 채식을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채식베이킹은 야심 차게 계획한 만큼 많이 시도하지는 못했는데 각종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정보도 많이 얻고 모르는 것들도 댓글로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 프로젝트 중 아빠와 크게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하는 활동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행히도 변할 것 같  
지 않던 아파도 변하고 그때의 성찰을 통해 나도 더 여유로워진 것 같다.



“

# 과정의 가치를 알아가기

”



김연서

## 강생강사 죽음 다이어리



프로젝트를 시작할 땐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가 될 줄 몰랐다. 분명 처음 목표는 2018 나로프로젝트 가을학기가 끝나기 전에 편딩을 올리는 거였는데 점점 2019년 1월 셋째 주에 올리기, 설날 끝나고 올리기, 5월 안에는 올리기로 데드라인이 늦춰졌다. 올해 안에 올린 것도 정말 대단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았는데 진짜 끝이 보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다들 고생을 많이 했다. 나로프로젝트 가을학기는 끝났지만 계속 우리의 멘토가 돼주신 태현쌤,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하고 끝없는 수정과 제작을 해주었던 도경언니. 회의라면 밤샘 회의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준 예진언니 까지.

모두, 더더지고 딜레이 되는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변수로 지치고 힘들어하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었다. 아쉽게 도경언니는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빠지게 되었지만 편딩 스토리텔링 칸에도 올라와 있는 ‘디자인: 김도경’이라는 단어가 도경언니를 대신해주는 것 같아 끝까지 함께하는 기분이다. 이 페이스로 편딩 시작 후 모든 마무리까지 으쌔으쌔해서 진행하고 싶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 고생한 나한테도 수고했다고 말할 것이다!

문예진

## 강생강사 죽음 다이어리



드디어 끝난 강생강사, 이렇게 우리의 두 계절이 지나갔다. 처음 보증금 정도 벌여 보자 했던 것이 호언장담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중이다. 와디즈와 텀블벅 중 고민하며 텀블벅을 골랐지만 3번의 수정 끝은 낙방이었다. 드디어 오늘 한 번의 확인으로 통과된 와디즈. 앞으로는 마케팅의 싸움인데 걱정이 앞선다. 긴 제작 기간 함께해준 연서에게 그리고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김연서

## 체다치즈



여름 말, 마감 일자가 임박한 영화관 생일 쿠폰을 쓰기 위해 기대 없이 본 영화 엑시트. 생각보다 재미 있었던 영화는 생각지도 못하게 나를 클라이밍에 끌리게 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가을학기 주제 클라이밍. 제목은 체.다.취.즈(즐) 은주쌤이 추천해준 제목 마음에 쏙 든다. 체력.다이어트.취미.즐기기.

같이 운동하는 회원분들이 다 엄마 나이뻔이라 초반에는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회원분들의 엄청난 친화력 덕분에 이젠 같이 갱년기 토크도 한다. 석류가 좋다 나 뭐라나. 대학 합격하라고 밥도 사 주시고 합격 소식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도 해주셨다.

나로프로젝트를 하면서 정했던 목표를 완벽히 이룬 적은 없다. 이번

에도 다이어트는 물 건너가고 아침잠과 게으름 덕분에 빠지기도 많이 빠졌다. 더불어활동도 있다. 그토록 실패할까 봐 무서웠던 웰다잉다어리 편딩. 망했다. 그 대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인연을 만났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용기가 생겼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목표도 어느 정도 달성했다. 클라이밍은 새로운 취미가 됐다. 어학연수 전까지 수강료를 결제했다. 한번 수업하러 갈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이 암벽을 타는 걸 보니 체력도 점점 늘는 것 같다. 다이어리는 은주쌤의 도움으로 인쇄 결정이 났다. 동네 독립서점에도 연락해볼 생각이다.

과정의 가치를 알려주고 실패 속의 성공을 발견하게 해준 나로프로젝트, 나에겐 소중한 활동이다.



윤지현

## R=VD



2018년 가을학기 활동가였던 미령이라는 친구 덕분에 더불어활동으로 팟캐스트를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로프로젝트를 알게 되었고, 2019 봄학기, 가을학기를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봄학기에는 영상 프로그램을 사고, 영상편집을 배워가는 걸 중점으로 뒀다면, 이번 가을학기에는 집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사서 집에서 더 다양한 영상작업을 해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하여 컴퓨터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은 짧은 인생인 18년 동안 제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구매한 물건 중 제일 비쌌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돈을 모은 걸 알고 계신 선생님들은 성취감이 엄청나게 크겠다고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저는 성취감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컴퓨터를 사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언제 또 저렇게 돈을 모을까?’ 였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모으기 힘들다는 걸 알았고, 아직 제 인생에서는 사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나만의 집, 어디를 가든 나를 태워서 같이 이동할 자동차, 기본적인 의식주이며 세금, 보험 등 컴퓨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발걸음 덕분에 많은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꿈드림 졸업식 영상도 만들 수 있었고, 더빙영상도 만들고, 지인 부탁으로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보고, 타이포그래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작업하기 위하여 아직 돈이 덜 모였을 때는 격주로 하는 정기모임도 참여해 근황을 전할 때, 아직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인 제가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다른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목표에 맞게 많은 걸 진행한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활동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걸 모임에서 조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활동가 여러분들과 선생님들의 지지와 격려의 말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하지만 드디어 컴퓨터를 사면서 그동안 막혀있었던 활동들이 쭉쭉 뚫렸고, 무사히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기뻐했어요! 완성된 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 영상 만들 때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또 저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상편집에 다행히 잘 맞는다는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희희! 이번 가을 학기 활동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준 저 자신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주변에서 응원해줬던 분들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고, 제시간이 된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올해 2019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안

## 핑몰



이번 학기는 저번 학기보다 더 눈에 띄는 발전이 있는 거 같아서 뿌듯하지만, 한편으론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도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 해도 평소에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칭찬해야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로 했다. 또 이번 학기는 저번 학기보다 더 바쁜 나날들을 보내와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다음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래도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 지금은 새벽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마음으로 해가 뜨길 기다리고 있다. (눈웃음) 그리고 이번 학기는 활동가들끼리 친해질 기회도 없고 다 따로 지낸 느낌을 받아 그 점이 너무 아쉽다. 서로 더 알아가면 좋을 텐데 서로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 만남의 한계가 있었던 거 같은 학기였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계단을 밟은 것 같은 학기였던 거 같다.

이주연

## 내 공간에 작은 정원



평소 풀과 자연물을 좋아했는데, 마침 문화센터에서 테라리움 강좌를 들어 내 주제는 테라리움으로 해야겠단 마음을 먹었다. 프로젝트 시작할 즈음 미세먼지가 기승으로 부렸었다.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식물의 정화능력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 우리 집을 풀로 가득 꾸며 보고 싶었다. 테라리움은 유리병에 식물을 담아 가꾸는 걸 말한다. 아기자기한 피규어를 넣어 단조로운 식물에 재미를 더하고 나만의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무게가 가벼워 쉽게 운반할 수 있다. 식물을 좋아하지만, 종종 가꾸는 건 어렵다고 느껴 쉽게 키우질 못했었다. 그에 반해 테라리움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서인지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 쉽게 가꿀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주제를 정한 후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라는 앱을 통해 다양한 테라리움 디자인을 찾아보았다. 다양한 유리 용기에다가 식물을 담은 모습이 인상 깊었다. 파스타 소스 병에다 돌과 이끼, 동물 피규어를 넣어 피규어에 생동감을 준 모습, 동그란 유리볼에 식물과 돌을 넣어 새로운 자연생태계를 연출 모습 등 여러 이미지에 흠뻑 빠졌다. 여러 이미지를 참고해 유리병 안에 나만의 정원,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다. 내가 좋아하는 피규어와 식물을 꾸민 테라리움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 설레고 기대가 됐다. 멀리 가지 않고 내 책상에 놓일 모습을 상상해봤다.

테라리움을 처음 만드는 거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다. 그런데도 스스로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거니 일단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제일 먼저 밑바닥에 놓을 자갈과 일정 수분을 유지해주는 수태, 배양토와 흙 그리고 이끼와 장식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고속터미널 조화시장에 가서 만들어져 있는 테라리움과 물품을 구경해보기로 했다. 생화를 파는 시장도 근처에 같이 있어 조화시장은 관련 용품을 같이 팔기도 한다. 예전에는 막연히 구경을 하기 위해 돌아다녔는데 이번 나로 프로젝트를 통해 주제를 가지고 구경을 하니 훨씬 새로운 게 많다고 느껴졌다.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돌아다녀 보니 지난번에는 무심히 지나갔던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야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구나! 라는 덜 배우게 되었다. 동그란 유리병, 비커, 삼각형 병 등 개성 넘치는 유리병을 보는 것만으로 재미있었고 만들어질 모습을 상상하는 것 또한 즐겁고 행복했다. 단순히 구경과 참고 목적으로 시장에 방문했는데, 필요한 게 많이 보여 그날 바로 여러 가지를 샀다. 이후 종로 꽃시장을 방문해 음지식물을 찾아다녔다. 꽃시장을 방문했을 때가 봄이라 여러 꽃이 많이 나와 있어 꽃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다. 어느 식물이 적합한지 몰라 인스타 등에서 주로 쓰인 식물을 참고해 구매했다.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난 뒤 드디어 직접 만들어봤다.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제일 작은 유리병에 시작했다. 유리병에 자갈 떨어지는 소리, 흙의 촉감, 물에 적은 수태의 느낌이 너무나 좋다. 무엇보다도 흙을 만지는 게 나에게 힐링이 되었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병 안의 흙을 평평하게 다지고 유목을 넣었는데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 어색

했던 것이었다. 경사를 만들어놓으니 훨씬 자연의 느낌이 났고 안정감이 생겼다. 어느 정도의 굴곡과 경사가 균형을 만들 수도 있구나 싶었다. 오토이 혼자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니 2시간 정도가 걸렸다. 너무 재밌었다. 정말 힐링이 되고 작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았다. 무언갈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더 하고 싶었고 작업하는 순간순간이 소중한 것 같았다. 테라리움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성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즐기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며칠 뒤에 두 번째 테라리움은 더피 고사리라는 식물을 심어 만들었다. 원형 유리병에 자갈→수태→배양토→식물→이끼→미니어처 순서로 똑같이 식재했다. 둥근 병에다 심으니 관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인지 너무나 예쁘고 자꾸만 보고 싶었다. 입구가 넓으니 심기도 편했다. 처음에 식물은 용기당 하나가 적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유리병 개수를 헤아려 구매했었다. 오히려 풍성한 느낌이 더 생동감 넘치는 것 같았다. 둥근 화기에 장점은 물을 줄 때 맺히는 물방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촉촉한 느낌이 자연생태계의 모습을 더 잘 나타내주는 것 같다.

테라리움 강좌를 들었을 때 이런저런 고민과 스트레스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 고민이 많았는데 수업을 통해 휴을 만지는 순간 그 고민이 눈 녹듯 사라졌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고 힐링이 되었다. 그때의 경험을 다시 하고 싶었고 마침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주제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나로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다. 나로 프로젝트를 통해 그때의 특별한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테라리움의 재료는 어떤 게 있는지, 어디서 구매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 관련 물품을 다루는지를 알게 되었다. 테라리움은 자체를 자기자하게 만들고, 내방에 정원을 만들겠다고 한 목표는 이루지 못한 것 같다. 그렇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 해보길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고 정보를 찾아본 것만으로 나는 얻을 것이 많다고 느낀다.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정보와 내용을 얻게 된 것이다.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 땅이 완전하게 평평하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 개성 있는 유리병 등 얻어간 것이 너무나 많다. 초보라 주제를 너무 크게 잡은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게 많아지니깐 다음번에는 조금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연

## 땡땡메이킹



이번 나로 프로젝트 활동은 부끄럽지만 처음 시작 한때는 계획적이거나 구성 잡힌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달달한 게 당겼는데 마침 유튜브에서 초코 데코를 하는 것을 보고 이걸로 신청하면 초코도 같이 먹을 수 있겠다. 라는 욕망 가득한 생각으로 신청한 것 이었죠(물론 그렇다고 ‘에이 초코 대충 만들지 뭐~ — —’ 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하지만 막상 초코를 만들려고 하니깐. 한번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료와 도구도 충동적으로 필요한 것은 최대한 사버리고 ‘처음 만드는 거지만 그래도 모작 느낌 나는 모작 정도는 되겠지?’하고 기대 아닌 기대감에 부풀어 초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처음에는 어렵고 잘 되질 않는 법 컵 초코를 만들 때는 설거지를 늘리기만 했고, 그릇 초코를 만들 때는 풍선으로 그릇 만들려다가 나도 꽃을 초코 범벅으로 만드는 등 당황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니기 마련이었죠. ‘이거 괜히 시작했나 하는 자괴감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해 버린 일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짐을 잡고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했는지 뭔가가 부족한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황당했던 건 ‘이 방법은 안 될 거야.’라고 확신했던 방법이 정답 중 하나였을 때는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나~ 이



게 맞다고? ㅎㅎㅎ' 라고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도 계속 진행하다 보니 많이 부족 하기는 하지만 각각 컵, 그릇, 꽃, 나비, 판 하트 초콜릿을 완성 시켰고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에 그 심정은 정말……. 좋았었습니다.^\_그리고 다시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지만 재미있었던 항상 도전 욕구가 솟구친 활동이었던 같습니다. ps: 이 활동을 도와주신 모든 쌤에게 감사드리고 활동을 다 마쳤거나 아직 과정 중에 있는 활동가들도 좋은 활동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나도 꽃을 졸업하시는 윤실쌤 저는 죄송하지만 쌤 가시는 길 마지막 인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남이 있다면 잠시 헤어짐도 있는 법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연이 끊어지진 않으니깐요. (게다가 마지막 인사를 드렸는데 며칠 안 되어 다시 만나버리면 멋쩍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인연을 믿기 때문에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예 말도 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무정한 느낌이 나니깐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비록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꽃 한 송이가 그 지친 마음을 정말 잠깐일지라도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의 향기가 되길 그리고 그 길에 따스한 빛이 비치길 바라며.’

정지원

## 간편한 지원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자신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작정 체중감량을 목표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지만 가면 갈수록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작은 운동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아침에 챙길 수 있는 간편한 식단을 세우고 싶단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운동을 시작하니 그렇게 먹어서는 버틸 수가 없을 거 같아 몸에 좋은 재료들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보는 것에 집중했다. 마지막에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많이 만들어 먹었던 재료인 연어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싶었는데 하필 결제를 한 날 두드리기가 생겨 연어 덮밥과 연어장만 만들고 나머지 만들고 싶던 요리를 마저 만들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꼭 요리뿐만이 아니라 꽃다방에서 일을 끝내고 자주 집에 걸어가고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과 다르게 할만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서 뿌듯하다. 밀가루를 끊기로 한 목표는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먹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 뿌듯하고 앞으로 프로젝트가 끝나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와-우!



“

새롭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발견하기

”



오형준

## 충북지역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로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이유는 우연히 카톡 오픈 채팅방을 돌아다녀 보다가 학교 밖 청소년들끼리 재밌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알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기대했던 것은 친구들끼리 교류하면서 즐겁게 3개월 동안 활동하는 것이었고,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알 수 있는 주제인 충북 여행의 관광지를 직접 소개해보면서 다른 친구들도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충북지역을 직접 돌아다녀 보면서 기행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서 순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가 약간 막막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내가 원했던 것은 무사히 마치는 것이었고, 다음에는 성소수자 인권 캠페인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로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처음보다는 조금이라도 는 것 같아서 나 스스로에게 뿌듯했습니다.



뿌-듯

최서연

## 불편한 페미니즘



나로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는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동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사실 페미니즘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소극적인 활동만을 펼쳐왔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큰 도전인 것 같다. 진행했던 활동은 현재 페미니즘에 대한 시선, 실제 페미니스트의 활동·주장, 양측의 문제점을 알아봤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지만, 또 그만큼의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오마르 씨의 유튜브 채널이 생각의 확립을 도왔다.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분노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구들의 응원으로 버틸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생각지 못하게 내면적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됐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치료가 필요했는데, 그 치료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다.



정지원

## 무제



나로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는 금전적 여건이 안 돼서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내가 초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불필요한 과소비를 막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다 건강한 식단을 직접 짜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시작하면서 저축과 가계부 적기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활동은 레시피를 정해서 식단도 만들어보고 재료를 마구 잡이로 사서 조합해서 먹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가계부도 적어보았으며 잠깐이지만 스팀연습을 위해 우유를 구매하는데, 활동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동안 힘들었던 건 가계부를 적으면서 주말정산을 하면서 합계가 맞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계산을 해야 했던 것이고 직접 만든 연어 초밥을 먹다가 탈이 난 것이다 나로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주제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깊게 파다는 기분이 들지 않아 아쉽다 하지만 가계부를 적는 게 나와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도 깨닫고 나로를 하면서 짠 식단은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얻어가는 것이 많은 활동이었던 거 같다.

02

# 나로프로젝트 소개

## 나로프로젝트 소개

**1. 정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계절학기 과정

### 2. 원칙

<b>자율</b> 나는 직접 기획하고 성장하는 활동가입니다.	<b>공동체</b> 함께 모인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 하며 협력하는 동료입니다.
<b>도전</b> 나에게 필요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b>성장</b> 활동과정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아갑니다.

### 3. 과정

※ 봄학기(3월~6월)/가을학기(8월~11월)

- ◆ **상상마중** 하고 싶은 다양한 일들을 상상합니다.
- ◆ **스스로활동**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여 실행합니다.
- ◆ **더불어활동** 동료 활동가와 팀을 이루고 협업하여 공동의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 ◆ **길잡이만남** 길잡이교사와 활동가의 개별만남으로 활동을 점검합니다.
- ◆ **정기모임** 정기적으로 모여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 ◆ **갈무리여행**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여행으로 프로젝트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 ◆ **공유회** 연말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성장과 배움을 공유합니다.

### 4. 지원

- ◆ **활동지원금** 10만원이상
- ◆ **활동 공간** 연습실, 회의실, 전시
- ◆ **협력** 동료 활동가, 길잡이교사, 마을 사람들

## 2017년 활동

### 1. 봄학기

#### 스스로활동

세상아래 같은 글과 색은 없다 남궁별 |  
오감을 자극하라! 박선영 | Be평 박영석 |  
날아라 슈퍼보드 박은서 | 나만의 타임캡  
슐 만들기 서훈 | 매의 혀로 맛봐주마 오  
승은 | 보다, 듣다, 생각하다 정연 | 읽고  
싶은 책 구예본 | 열심히 해야죠 이정규 |  
오버워치 챌린저 달기 최윤서

#### 더불어활동

〈별서영서의 헤어초크〉 유스카페 이용 청  
소년을 대상으로 헤어초크 재능기부 활동  
〈가정의달 캠페인〉 포스트잇을 사용해 따  
뜻한 메시지 전달하는 가정의 달 캠페인  
〈이색카페탐방〉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 페  
이스북으로 알리는 활동

### 2. 여름학기

#### 스스로활동

버스킹버스킹 구예본 | 반짝반짝 빛나자  
김향리 | Made Me 박영석 | 박화백 박은  
서 | 나의 떡방은 손희주 | 최고의 관객  
신희연 | 시간을 되짚어보자 이서현 | 약,  
타블렛 이정규 | 너만 가냐! 나도 간다!  
정연 | 니 입술색 구려 정지원

#### 더불어활동

〈드로잉〉 자유주제로 드로잉하고 서로 공유  
하는 활동  
〈sing〉 버스킹  
〈우리가 쉬어가는 곳, 정류장〉 지하철 이  
용자들에게 힐링 응원 캠페인

### 3. 가을학기

#### 스스로활동

문화생활 체험을 하자! 김항리 | 롤라스  
케이트 타고 롤라 가자~! 남궁별 | 밤비  
아니? 박영석 | 너와 나의 연결고리 신희  
연 | 같이 가자 이소현 | 향기로운 꽃내음  
말아볼래!! 이주연 | 내가 만드는 동화책  
정연 | 꽃다방의 바리스타 나야, 나! 정지  
원 | 커피와 나 최기찬

#### 더불어활동

〈신나는 보드여행〉보드게임을 하고 리뷰  
및 설명서 만들기  
〈발이스타의 커피나눔〉커피 시음회 준비  
및 진행하기

## 2018년 활동

### 1. 봄학기

#### 스스로활동

작품 전시-아트전시회 김도경 | 선수의  
길 ; 종합격투기 김민수 | 노래 마스터 김  
신희 | 즐겁고 행복한 라이프 김연서 | 행  
복하개 ; 유기견 캠페인 김태희 | 쿵더러  
러러 ; 음악의 다양성 문예진 | One step  
two step ; 재봉 박지혜 | 모두 다 같은  
사람 ;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해소 박현  
빈 | 나아가자 ; 나의 생각과 가까운 사  
람이 되자 신희연 | Play Jazz 이정민 |  
프리한 가족 여행 정연 | 연주자의 길 ; 바  
이올린 조소희

#### 더불어활동

〈관람〉관람을 통한 다양한 관점을 바라보는  
활동  
〈스몬박스 ; 스포츠〉스포츠포몬스터 체험 기  
획 및 진행, mma일일클래스  
〈미생 ; 밴드〉버스킹 기획 및 진행, 스쿨미  
투 문화제 참여

## 2. 가을학기

### 스스로활동

그림으로 무언가 만들기 ; 굿즈 제작 김도경 | 자퇴생은 그림 그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 웹툰 연재 김미령 | MMA 김민수 | 쿠키는 사랑을 싣고 김연서 | 최애캐를 음식으로 표현해보기 김향리 | 명품성대 Baam 문예진 | 스트레스 해소 박채은 | 18짤 ; 사진 정지원 | 바다보러 지원금 바다 ; 여행 한주희 | 채식 활성화를 위한 방안 탐구 박현빈 | 다이어트 운동 김민주

### 더불어활동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편(fun)한 경제활동〉 직접 만든 타르트를 지역 플리마켓 꿈길장에서 판매  
〈너는 틀리게 보고 있니, 다르게 보고 있니?〉 학교밖청소년을 주제로 팟캐스트 녹음 및 공유  
〈경제적 가치 높이기 '깡생깡사'〉 웰다잉을 주제로 한 다이어리 제작

## 2019년 활동

## 1. 봄학기

### 스스로활동

맹맹메이킹 정연 | 내 공간에 작은 정원 이주연 | 판스판스 김민주 | 하늘아래 같은 문화생활은 없다 남궁별 | 무제 정지원 | 나의 건강을 위해 김민주 | 충북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형준 | 피아노 후려치기 이수빈 | R=VD 윤지현 | 여행 윤슬아

### 더불어활동

〈ㅇㅁㅇ팀〉 정신줄놓기 프로젝트  
〈깡생깡사〉 죽음다이어리만들기  
〈프린세스월드〉 학교밖체험활동 기획 및 진행

## 2. 가을학기

### 스스로활동

의미있는 섬 김민주 | Valencia Exercise  
Project 김여진 | 체다치즈 ; 체력. 다이어트. 취미. 즐기기 김연서 | 작심삼개월 김유빈 | R=VD 윤지현 | 핑물 이안 | 채식요리&베이킹 이한솔 | 내돈처럼 정민지 | 간편한 지원이 정지원 | 불편한 페미니즘 최서연

### 더불어활동

〈말모이프로젝트〉 학교 밖 청소년의 언어를 모아서 마을에 공유하는 활동  
〈와디즈 무덤에서 부활의식하기〉 웰다잉 다이어리 제작 및 판매  
〈내스스로활동에 초대합니다〉 스스로활동에 다른 활동가들을 초대

#### 더불어활동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말을 모으다

##### 주제

학교 밖 청소년의 말모이 프로젝트

##### 방법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퍼실리테이션 및 설문조사

##### 실시배경

학교 밖 청소년이 받고 있는 다양한 시선과 편견을 모아 보고, 이러한 시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했다.

##### 진행과정

**1차** 봄학기 정기모임 퍼실리테이션 (10명, 4/20)  
**2차** 가을학기 상상마중 퍼실리테이션 (10명, 8/13)  
**3차** 가을학기 더불어활동 온라인 설문조사 (26명, 10/17-11/2)





###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

안 늦었어. 알차게, 건강, 책임감, 걸도 속도 착한 내 모습, 언제나 우울하지  
않길 모든 일에 완벽하길, 천천히 조금만 진정, 천천히 해도 괜찮아, 올바른  
의견 표현, 경험이 풍요로운 사람,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기 등

### 학교 밖 청소년이 세상에 말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가식으로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하나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지만 우리  
는 다양한 것들 내 모습 그대로 천천히 시도할 테니 신경 쓰지마”

### ② 학교를 나와서 좋았던 점

#### 충분한 자신만의 시간 및 다양한 경험

- 시간이 많아지고 조금 더 자유  
롭게 하고 싶은걸 할 수 있다.
- 자기만의 시간이 늘어나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내가 원하는 시  
간에 할 수 있고 새벽 공부도 자유  
롭게 할 수 있어서 좋다.
- 학교라는 공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  
할 수 있습니다. 남는 시간이 많  
아지기 때문에 각종 체험 등 건문  
도 넓힐 수 있습니다.

-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나와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자유롭게 시간을 배분해 할 일을 할 수 있고 학교 다니던 시절에 가기 힘든 곳도 갈 수 있게 됨 (은행, 병원 등)
- 충분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해야 하는 일 등을 먼저 해낼 수 있었다.
- 우선 학교에 있는 시간을 집이나 학원에서 보내다보니 혼자만의 시간도 많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도 할 수 있어요.
- 학교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사라지면서 활동의 범위가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다.
-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휴식 및 스트레스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관계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을 줄일 수 있고 자기개발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협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퇴 후 굳이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가장 높게 둡니다.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보기 싫은 학교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

학교 선생님들과 또래 친구들과 그리고 학교 내 불편하거나 부적합 또는 부적절한 시스템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받는 가능성이 0에 수렴하게 된다.

## 자기주도적인 생활 가능

---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었던  
것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  
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

검정고시 공부 이외의 하고  
싶었던 공부들(심리, 철학, 영  
화, 문학 등)을 탐구 할 수 있  
을게 많이 큰 것 같습니다.

---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  
갈 수 있다, 나 자신과 더 가  
까워진다, 나를 알아갈 수 있  
는 시간이 많다, 내 몸을 챙길  
수 있다(운동!), 다른 친구들을  
따라 가려 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나의 선택에 모든 것  
을 결정할 수 있다.

---

내가 원하는 길을 더 자유롭  
게 고를 수 있다.

---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  
를 할 수 있다 짧게는 하루부  
터 길게는 몇 년 치의 일과 계  
획을 구성할 수 있다.

---

비교적 시간의 제약 없이 내  
컨디션과 이해 정도 등 나의  
상태에 맞추어 스스로 능동적  
으로 공부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 ③ 학교를 나와서 겪은 불편한 경험

#### 학생 증명 및 입시 제한

- ◆ 학생 이벤트 해당 안 됨.
- ◆ 검정고시 및 학교 밖 출신이라는 이유로 참가하지 못한 공모전들이 많고 대입에도 어려움을 겪음.
- ◆ 자퇴생이라서 미용실에서 할인을 못 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속상했어요.
- ◆ 할인 받을 때 청소년증 안 되는 곳이 종종 있음.
- ◆ 설문조사 할 때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직장인 이런건 다 분류가 되어있는데 백수랑 자퇴생이 없어서 어디에 체크해야 될지 난감했다.
- ◆ 여러 가지 청소년 공모전이나 대회에 출전이 불가능하다.

#### 소속의 부재

자퇴를 하기 전엔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있었는데 자퇴를 하 고나니 이젠 학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각이 많아졌었어요.

학교 밖 소속이라는 자신의 상황이 상당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 정보의 제한

재학 중 일 때는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분야의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문의이전에기본적으로받는가정통신문과교내포스터와같은공지) 얻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모든 것을 스스로 찾아야한다. 꿈드림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센터들에선 자신이 먼저 문의 및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 자퇴생 인터넷 커뮤니티나 관심분야에 대한정보를 관심에 그치지 않고 매번 항상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 질문 취지에 맞는 것 같진 않지만…….

### 문제아일거라는 시선

- 양아치네(날라리)
- 자기주장 강하고 사회성이 떨어질 거라는 선입견
- 자퇴생이라고 해서 애는 공부 안하고 질이 나쁜 애일거야 라고 예상해서 보이는 시선과 말투가 자주 있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가끔씩 비행청소년 보듯 해요.
-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안닌다고 하면 비행청소년 혹은 사회부적응자로 바라봄.
- 학교 밖 청소년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다.

## 지나친 관심과 질문

어딜 가든 학교 그만둔 이유를 물어보는 게 좀 그래요.

.....

자퇴는 왜 한거니?

.....

괜찮아 요즘에는 자퇴 많이 하고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다 이해한다는 듯이)

.....

평일 낮에는 밖에 나갔다가 동네 이웃 마주치면 학교 안 가냐고 물어봐서 외출 하기가 불편해요.

.....

학기 중 평일 낮 시간에 항상 느껴지는 눈초리, 학교에 안다닌다고 하면 보수적인 어른들께서는 항상 한마디씩 하고 가셨습니다.

.....

친구어머니 : 너 요즘 아직도 ooo랑 노니?

.....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

가족이 나를 부끄러워 함. 친척의 차별.

학교를 다닐 때 갔던 (수강)상담을 갔던 과외 선생님께 자퇴 후 자퇴하였다고 과외 받고 싶다고 말하니 당황하시면서 자퇴생을 좀 그렇다 하시면서 다른 선생님을 소개 해주겠다고 하셨다.

.....

학교를 안다니면 그저 노는 것이라 생각했던 친구들이 부럽다고 하는 상황이 좀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안다닌다고 놀기만 하고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잘 모릅니다.

.....

어른들이 나이 물어보시고 학교 물어보실 때 자퇴했다고 말하면 어른 분들 표정이 안 좋아진다.

.....

잘 지내냐, 검정고시는 준비하냐, 앞으로 어떡할거냐, 왜 자퇴 했냐 등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받았었다.

.....

자퇴생이라고 밝히면 신기하거나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봐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 ④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 자퇴는 죄도 흠도 아니다.
- 자퇴는 내가 했던 수많은 선택 중 하나였을 뿐이다.
- 신경 안 쓰셔도 돼요.
- 제가 알아서 할게요.
- 청소년이 모두 학교를 다닐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 $1+1=2$ 라고해서 ‘2’만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옳은 길을 가는 게 아니다.
-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소수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했다,

- 보호자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은 보호자와 독립된 존재이다. 대한민국은 청소년·녀의 신용과 개인정보를 보호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 당신은 이 나이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경험과 능력이 있으며, 검정고시 성적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자체 생기부와 포트폴리오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싶음.
- ebs에서 검정고시 강좌도 개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 난 남들과 다르지 않다 등등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 ※ 시간이 해결해주거나, 학교 밖 캠페인 같은 시설 활동들도 나가서 점점 자신을 익숙하게 만들었어요.
- ※ 자퇴생이라고 해도 편견 없이 똑같은 청소년이라는 걸 봐줬으면 한다고 말하고 싶다.
- ※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다 문제아는 아니라고요! 전 제 꿈을 위해 조금 더 일찍,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살고 있을 뿐이라고요.
- ※ 어딜 가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걸 '학교 밖 청소년'에게만 돌리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아직 세상이 자퇴생들을 원만 민 끝에 자퇴를 했습니다."라고  
하게 이해하지는 않지만 그래 당당히 말할 것입니다.  
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 신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한  
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거 하 번이라도 내가 별을 받은 적이  
며 살아요. 우리:) 나 반성문을 쓴 적도 없었고 중  
..... 학교 때까지 개근상을 3년 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청 내 받았다. 학교에 다니는 것만  
소년증도 내가 청소년이라는 이 올바른길은 아니다.  
걸 증명하는 건데 왜 안 되는 .....  
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선택했던 자퇴를 선택  
..... 했든 우리 그냥 다 같이 행복하  
"저는 저의 명확한 꿈과 목표를 게 살아요.  
가지고 제 인생에 대해 많은 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세요.

사람 사는데꼭 가야 할 곳은 아니잖아요.

.....

자퇴에 대해 당당한 내가 되고 싶어요.

.....

설문조사 기타란에 당당하게 자퇴생이라고 적고 싶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주눅 들고 싶지 않다.

.....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아무 준비 없이 대충 가르쳐도 되는 건가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나온 것뿐이지 배움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최소한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주세요.

.....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보다 이 사회에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가  
조금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냥 학교도 하나의 선택이고, 자퇴도 하나의 선택이라 여기면  
안되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아무런 의심 없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신기합니다.

03

# 길잡이교사 이야기

## 길잡이교사 하은주



징검다리거점공간 '나도, 꽃'은 학교 밖 청소년의 '공터'이다. 비어있는 터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공동의 작업을 하기도 하고, 나만의 프로젝트를 벌이기도 한다. 길잡이교사는 그 터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활동가들의 결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올 한 해에도 나도꽃 공터에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였고, 그들의 활동으로 채워져 갔다.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활동 결과뿐 아니라 어떻게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하여 알게 됐고, 길잡이 교사로서 점점 더 확인해가는 것들이 생겼다.

### 나로부터 나오는 나만의 활동

#### 불확실함 속에서 한 걸음을 옮기게 한 용기

#### 과정의 가치를 알아가기

#### 새롭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발견하기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을 나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불확실함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나도꽃 활동가들은 그 불확실함 속에서 나를 알아가기 위한 시도를 하려고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냈다. 그리고 시도했던 것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패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나로프로젝트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프로젝트이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우리에게 갑



자기 나답게 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과정의 가치를 지속해서 나누고 확인했다. 그렇게 여러 시도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기도 하고, 마주하지 않았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활동가들도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야말로 사람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과 비 청소년의 차이도 아니고,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차이도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여정을 떠나고 있었고, 누구도 정답을 알고 걸어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여러 환경 요소로 인해 나 자신을 덮어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더 많을지 모른다.

그래서 나도곶에 모인 활동가들의 모습이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확인하게 됐다.

## 길잡이교사 윤상희



### 나로프로젝트 :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익힌다.

나로프로젝트는 활동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각자에게 맞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누군가에게는 당장 몇 달간이라도 집을 나와 생활할 수 있는 돈, 다음 단계로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나 씬, 지금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자신을 긍정하게 할 수 있는 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나를 발견하고 위로임을 엿볼 수 있었다. 이를 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모두 다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처한 상황이나 환경, 목표, 속도 등 같을 수 없다. 그렇기에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변하는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가며 진행하고, 스스로 의미를 찾아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되었다.

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활동가에게 "같이 해보자. 나도 그때 다른 언니들이 도와줘서 할 수 있었어."라고 말하며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나로프로젝트는 '나 혼자만으로도 잘살 수 있어'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속에서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 안전한 실패

학교에 다니면서 어딘가에서도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공간, 실패해도 안전한 공간은 없었다. 시험의 점수나 수행평가의 결과물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었다. 그때의 경험들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 실패인지, 그 속에서 배울 것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활동가들이 좌절과 실패를 해도 괜찮은 공간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나로프로젝트의 마지막 정기모임에서 소감을 나누며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정답이었어요!”, “처음엔 실패라고 생각해서 힘들었는데 그 덕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더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을 기회였어요”라고 말하는 활동가들을 발견하였다. 나로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완전한 실패가 없다는 걸 경험하며 알았기에 앞으로 삶에서 생기는 도전들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04

**징검다리거점공간**  
**‘나도,꽃’**  
**소개**

## 징검다리거점공간 '나도,꽃'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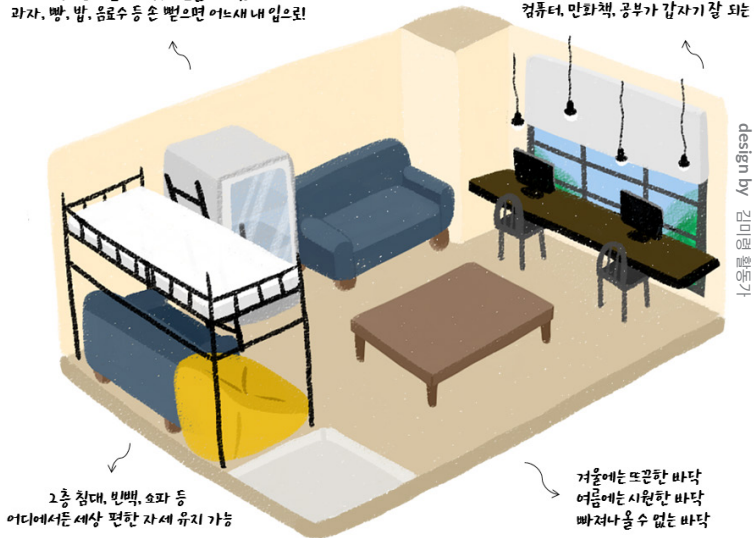
‘나도, 꽃’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서울시학교밖지원 센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징검다리 거점공간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교생활이 무의미하고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 
- |                        |   |                                     |
|------------------------|---|-------------------------------------|
| 2012. 03               | ◆ | 징검다리거점공간 ‘나도,꽃’ 운영 시작               |
| 2015. 07 ~<br>2017. 06 | ◆ | 자립지원프로젝트 ‘모움프로젝트’ 진행                |
| 2017 ~ 2018            | ◆ | 함께걷는아이들 청소년자립지원사업<br>자몽 ‘나로프로젝트’ 진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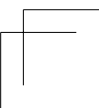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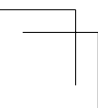


먹으면서 몸이 따뜻해짐을 느껴봤니?  
과자, 빵, 밥, 음료수 등 온 뽀오편 어느새 내 입으로!

풍경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바테이블  
컴퓨터, 만화책, 공부가 갑자기 잘 되는 곳



- ◆ 만남터
  - 월 2회 정기모임 진행
  - 청소년 활동가 간 관계형성 및 주요 의사결정과 활동 기획
  - 길잡이교사와 활동가 개별 만남 및 상담
- ◆ 쉼터
  - 활동가는 휴식, 놀이, 공부 등을 위한 나도꽃 아지트 이용 가능
  - 간식 및 놀이감 상시 배치
- ◆ 배움터
  - 나로프로젝트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계절학기 과정
  - 교육멘토링, 특강, 문화강좌 등
- ◆ 놀이터
  - 활동가들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기획하도록 지원
  - 여행, 문화체험, 기획 활동 등
- ◆ 채움터
  - 교통비 지원, 바리스타 인턴십, 징검다리 마을 기금 등



## 2019 나로프로젝트 보고서

발행일	2019년 11월 29일
함께만든이들	김민주 김여진 김연서 남궁별 문예진 오형준 윤슬아 윤지현 이수빈 이안 이주연 이한슬 정연 정지원 최서연 길잡이교사 하은주, 윤상희
디자인	화화작업실
주최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주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후원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1-나길10 (공릉2동 87-5)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070-7865-1440 / [hej@youth.seoul.kr](mailto:hej@youth.seoul.kr)  
[www.facebook.com /nadoflower2012](http://www.facebook.com/nadoflower2012)  
[blog.naver.com /nado-flower](http://blog.naver.com/nado-flower)